

이형석 “광주시장 선거 생각無” 불출마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에 정자로 거론돼온 이형석(56)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17일 뉴시스의 전화통화에서 “광주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밝혔다.

그는 “시당위원으로서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선거 등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선거업무와 당무 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당위원장은 5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광역의원인 광주시의원, 5

“민주 시당위원장으로 선거 승리 올인”

후보군 8명으로 줄어...국민의당은 2과전 예상

개 자치구 기초의원 후보자 경선과 공천 등을 총괄하고 본선거를 진두에서 지휘하는 위치다.

민주당에서는 윤장현 시장의 재선 도전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3인 의원 출신 강기정 전 최고위원 민형배 대통령직속 지역위 호남특별

위원장 겸 광산구청장, 양향자 중앙당 최고위원, 이병훈 전 문재인대

령 후보 광주 총판선대본부장 겸 동남을위원장, 재선 의원 출신의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 부위원장, 이형석 시당위원장,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등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거나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이 위원장의 불출마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군은 8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민의당에서는 최근 ‘예산 전문가’ 장병완(65·광주 동남갑) 의원이 불출마를 공식화하면서 4선의 김동철 원내대표와 3선의 박주선 의원의 2과전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개호 전남도당위원장은 전남지사 출마가 유력시 돼 시·도당 위원장 사퇴 시한인 2월13일(선거일 120일 전) 이전에 위원장직을 내려 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충북이 광역단체장 출마를 이유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났고 인천, 대전, 경남, 제주도 사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전북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바른정당과 합당을 반대하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가칭 개혁신당 창당 준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개혁신당 창당 본격화

안철수와 결별 선언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와 결별을 선언하고 새로운 개혁신당을 추진한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17일 전주교대에서 개혁신당 전북 결의대회를 열고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과 패권정치를 극복하고 다당제 합리정치 실현을 위해 국민의당을 창당했다”며 “그러나 총선민의를 배신한 당 대표의 반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당 운영, 정치공화적인 보수연합 추진은 결국

이 모든 창당 의미를 퇴색시켜 버렸다”고 안 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보수적폐세력과 연합에 반대하며, 전략적 연합집산 논의로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의 시간을 소모해버리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정치 역시 거부한다”며 “민주, 평화, 개혁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총결집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개혁신당을 창당한다”며 “햇볕정책을 계승해 평화로운 나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안 “대중교통 무료 운행 효과없는 수십억 낭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시행한 대중교통 일시 무료운행에 대해 “취지에 따른 효과는 전혀 없이 수십억원의 혈세만 낭비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그날(대중교통 일시 무료운행을 진행한 15일)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심각하지도 않았다. 반면 대중교통 무료화로 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잘못된 정책이 부른 예산 낭비 사례임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오늘 또다시 대중교통 무료화를 단행했다. 100억짜리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셈”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시민들에게 풀이준 100억짜리 선물은 도대체 누굴 위한 건가”라며 “또다시 나쁜 예고가 나오면 150억, 200억, 250억을 들여 계속 그렇게 할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서울시는 100억짜리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왜 산청비리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실행하는지 그 이유, 배경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태우 최고위원 역시 “하루 시행하는 데 소모되는 예산이 무려 50억원인데 그만큼 실효성, 가성비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선심성 예산을 따구 뿌리며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미세먼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이 50% 이상 차지한다”며 “국민 선심성 단계 대책이 아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쇼트트랙 훈련 지켜보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빙상경기훈련관을 방문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훈련 중인 쇼트트랙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다.

추미애 “MB, 이제라도 실제적 진실 고백해야”

“범망 빠져나갈 궁리, 꼴사나운 모양새” 꼬집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비자금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다스 비자금(배후)에 이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과 운영에 개입했다고 진술을 바꾼 것을 언급하며 “다스는 누구 짓임나까라는 국민의 질문은 단순히 소유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서가 아니다”며 “다스를 둘러싼 비자금, 뇌물, 불법 증여, 부정 축재라는 적폐를 해소해달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투명하고 정의로

요구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인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제 그 뒷전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우려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사유비 상납 사실을 보고 받았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특수활동비 상납(지시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단서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대선회의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범망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은 대통령 답지 못한 꼴사나운 모양새”라며 “이제라도 실제적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 검찰은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의혹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꼬

집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허접사리 만든 평화올림픽 기회를 무책임한 이념선동, 색깔론으로 몰고가는 보수야당 행태는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며 “비중도 반영하는 남북대화를 보수야당이 이우성치며 반대하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가 잘 되는 꼴 못 보겠다라던 대단히 유치한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평창동계올림픽 한반도기 논란에 대해서는 “초당도 하지 않을 말을 유치하게 한다”고 일축했다.

추 대표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문슬람’ 발언에 대해서는 “나라를 폄하하고 비하할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망국적 발언”이라며 “참으로 개탄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 유포를 엄중 처벌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관제국도 사회신뢰를 붕괴시키는 악성댓글을 방지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고위원 박인숙 탈당 쇼크

바른정당 “흔들림 없이 우리길 간다”

최고위원이었던 박인숙 의원의 갑작스러운 탈당으로 충격에 빠진 바른정당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 내부 결집을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어제 박 전 최고위원이 탈당을 했다. (그의 탈당 결정)을 저를 포함해 아무도 몰랐다”며 “당대표로서 박 의원의 탈당에 대해 참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위가 어찌됐든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측면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단 당원동지 여러분이 당을 지켜주는 한

저는 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계속 가겠다”고 다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어제 박 의원의 탈당으로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저도 충격을 받았다”며 “일부 의원들의 앞선 탈당은 예고가 돼 있었는데 어제 박 의원의 경우 정말 갑작스럽게 탈당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번 말을 했지만 우리는 강한 결의를 갖고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며 “유 대표의 손을 잡고 죽음의 계곡을 넘어 만들고자 했던 그 정치의 길을 힘을 내서 계속 가자”고 밝혔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무료상담환영”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